

# 전 진안군민 용담댐 식수공급 총력

### 용담댐 관련 군민 권리 찾기 위한 현안소통회의 갖고 전 지역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등 논의

진안군은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맑은 물을 전 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및 부군수, 국장 및 해당 실과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담댐 관련 진안군민의 권리 찾기를 위한 현안소통회의를 가졌다.

용담댐으로 인해 군민들이 받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진안군 전 지역으로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용담호 주변 지원사업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상수원 이용 대규모 타 탬 비교 ▲금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건의 및 기금 확보 등 7가지 현안업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용담호 댐 지원 사업의 진안군 배분을 상황조정, 상류지역 환경기초 시설 설치 운영의 지원 비용 및 지원 대상 확대와 주민 지원 사업 지원 비용 인상 및 배분기준 상향 적용, 오염 시설물 위주 토지우선매수 등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정 치권·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1년도 제28회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맞아 용담댐을 아끼는 물의 소중함과 함께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용담댐 관련 '우리의 뚝'을 찾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용담댐은 지난 1990년 착공해 2001년 10월 13일 준공했으며 용담호 물은 전 북권은 물론 충청권 주민 등 150만명에게 1일 135만톤의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용담댐이 건설되며 군 내 6개 읍·면, 67개 마을 36,244㎡ 면적에 물이 잡혔고 결국 2,864세대 1만2,616명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인구 유출은 곧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다. 진안군 전체 면적 789㎢ 중 112㎢(1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용담호 수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강제적인 방식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신 주민이 자율적으로 광역상수원을 지켜내는 성공적인 수

질 관리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군민의 49% 정도만 용담호 물을 먹고 있으며, 진안군에 광역상수원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4년 전 일이다.

그것도 전체 광역상수도 공급량의 0.4%에 불과한 1일 5,800톤만을 공급 받고 있는데, 이는 생활용수 정도의 공급량 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듯, 진안군민의 절반이상이 상수도 공급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진안지역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도 비상시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댐 건설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진안군민들이 정작 용담호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지권과 힘을 모아 2021년 추진 중인 전국 수도정비 2040 계획에 진안군 전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2021 장수군 희망복지 안내서' 500부를 발간하고 배포 완료했다.

## 장수군 희망복지 안내서 발간

### 복지서비스·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수록해 이용 편의 제공

장수군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더 많은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하고 군민들의 정보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1 장수군 희망복지 안내서' 500부를 발간하고 배포 완료했다.

지난 5일 장수군에 따르면 희망복지 안내서는 총 120쪽 분량으로, ▲생계·주거지원, ▲장애인지원, ▲노령층지원, ▲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여성·다문화지원, ▲보건의료·출산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현황 등 105여개 서비스 내용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을 수록해 지역주민

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장수군은 제작된 안내서를 각 부서 및 읍·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안내서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 하고 군민 모두가 골고루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간된 희망복지안내서는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미세먼지 저감으로 무주 청정 대기 지킨다

### 군, 경유차 저공해·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무주군이 2021년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 대상 저공해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나선다.

조기폐차와 매연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경유차 저공해사업에는 총 사업비 14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서 무주군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돼 있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는 등 5개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 폐차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를 받은 차량 등에는 매연저감 장치를 지원(PM·NOx포함)하는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사용 본거지 무주군)과 일반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 신청

(방문)은 오는 1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하고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 지영 팀장은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힌다"며 "무주군에서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무주의 청정 대기를 지키고 전 세계 기후변화를 줄이는 실천이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원예분야 시범사업에 17억원 투입

진안군은 지난 5일 올해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7개 사업 90개소의 사업자를 확정하고 예산 1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R&D(연구개발)분야에서 새롭게 연구 개발된 기술의 영농현장 확대보급을 위해 농가에 새로운 영농기술과 기자재를 투입하

는 시범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국도비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이나 신기술 보급분야에 9개 사업, 저비용 고효율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 분야에 9개 사업,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 분야에 1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상(온난화 등), 소비패턴 변화 등에 대비해 애플망고, 열매마, 체리, 딸기, 블랙사피어(포도), 사과 우리품종 아리수, 감홍, 꾀마킹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예농업 현장의 노동력과, 에너지 절감,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성 다경보온커튼, 스마트 관개시스템 보급, 고추 Y자 지주대 등을 보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토종 농산물 종자 수집 나서

무주군이 토종 농산물 종자 수집에 나섰다. 수집된 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등지에서 장기 보존할 계획으로 토종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새 소득원 확보의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11월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토종 종자 발굴과 DB구축, 씨앗도감 발간 및 영상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운영에는 무주토종연구회 회원들도 참여해 씨앗뿐만 아니라 씨앗에 얽힌 사연 등을 찾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토종연구회 정영란 회장은 "토종 종자 수집은 토종이 수입 종자에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종자 주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라며 "의미있는 일에 연구회가 동참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할머니가 시집을 때 가져오신 씨앗'부터 '대물림 씨앗', '오랜 세월 동네어귀를 지키고 있는 돌배, 옹에, 고욤나무' 등에 얽힌 역사와 사연까지

수집해 후대에 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과 무주토종연구회에서는 토종 종자에 대한 제보와 문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주꿀파'를 비롯한 '사과참외'와 '토종오이', '가지' 등의 토종 농산물 모종을 재배해 주민들에게 분양한 바 있다.

한편, 1970~80년대에 수집한 무주군 토종 종자는 벼(무주도)와 옥수수(무주할1, 무주할2, 무주할3, 무주메), 보리(무주얇은맹이, 무주피맥2) 등이 있으며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관돼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은 "무주군에서 오랫동안 재배돼 온 토종 종자는 투박한 수량성은 낮지만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을 가려내 특화시킨다면 향토음식 발굴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며 "무주군에서는 앞으로 수집된 토종 종자 전시포를 운영해 토종 작물을 널리 알리고 보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영수 군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장영수 군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택배 등 대면 노동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돌봄·배달·운송 등에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캠페인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응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장 군수는 "필수노동자들의 이미지와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란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페이스북 등 SNS 등에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사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군민들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장 군수는 다음 참여지로 전현철 고용노동부장추진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기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무주군이 양봉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2021 양봉관리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실시되며, 5일부터 31일까지 이론 33시간과 8시간 과정의 현장실습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한영동 대전충신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정문규 한국양봉농협 대표, 김병진 이산꿀벌농원 대표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됐다.

3급 과정의 이번 교육은 양봉의 이해와 입문, 꿀벌의 종류와 생태, 꿀벌 관리에 관한 기초식식과 기법, 효율적 양봉관리, 양봉기술능력 등 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